

R Responsible Care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화학산업의 약속

Issue No + 42

Intro 유우종 한국다우케미칼 대표 인터뷰

Special 2019년 RC리더십그룹 상반기 회의 결과

Issue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배우는 기업전략

Members Focus 회원사 마당

RC Activity 사무국 주요 활동 소개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무단전재를 금하며,
수록된 내용은 본회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Responsible Care

2019
Issue No + 42



통 권: 제 42호
 발행인: 심홍섭
 발행처: 매경바이어스가이드
 발행일: 2019년 6월 24일
 전 화: 02-3668-6174
 E-mail: rcmaster@krcc.or.kr
 홈페이지: http://www.krcc.or.kr

- ▶ 03 **Intro**
유우중 한국다우케미칼 대표 인터뷰
- ▶ 07 **Special**
2019년 RC리더십그룹 상반기 회의 결과
- ▶ 13 **Issue**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배우는 기업전략
- ▶ 19 **Members Focus**
회원사 마당
- ▶ 25 **RC Activity**
사무국 주요 활동 소개
- ▶ 28 **Calendar**
2019년 한국RC협의회 주요행사 안내
- ▶ 29 **회원사 리스트**



Responsible Care®는 화학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제조·판매·유통·사용·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환경과 안전,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배려하고, 경영방침에 이를 공약하고 실행함으로써 환경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화학산업의 자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더욱 혁신적이고 책임감 있게 화학업계를 선도한다!

유우종 대표이사 | 한국다우케미칼㈜

다우는 패키징, 인프라스트럭처, 컨슈머 케어 등 소비자 주도적 사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소재 과학 기업으로 에틸렌, 프로필렌, 실리콘 등 세 가지 핵심 소재를 통해 화학업계에서 가장 심도 있는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2019년 4월 현재 전 세계 31개국에서 113개의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약 3만 7천명에 달한다. 지난 1980년부터 올림픽 파트너사로 활동, 2010년부터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TOP) 및 올림픽 후원 공식 화학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다우의 유우종 대표이사를 만나 다우가 실현하는 인류와 환경을 위한 경영철학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2013년 다우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무팀에 변호사로 합류해 2015년 11월부터 한국다우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사장 부임 이후 듀폰과의 합병, 그리고 다시 분사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한국다우에 대한 소개와 특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우는 1967년 다우케미칼 인터내셔널을 개설하고, 1969년 충주비료와 50 대 50 비율 합작회사인 한양 화학을 설립하며 한국 시장에 첫 진출했습니다. 1975년에는 한국 화학산업 최초로 100% 외국투자기업인 한국다우케미칼을 설립해 다우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1억 4,800만 달러를 투자하며 한국의 화학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2019년 4월 현재 한국다우는 약 3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 및 여수 사무소와 진천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천공장은 건설, 패키징, 조명, 전자제품, 자동차,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실리콘 소재 기반의 원료를 생산합니다.

한국다우의 경영이념과 경영철학이 궁금합니다.



다우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고객 중심적이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재 과학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혁신은 고객과 함께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소재 및 솔루션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고객 중심은 디지털 및 개인적 소통을 통해 사업 수행을 쉽고, 즐길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포용성은 성별, 인종, 지역 등 개인의 성향과 상관없이 완전히 포용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회와 우리의 행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한국다우는 이러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고객, 협력사 및 모든 이해당사자와 협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다우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인 'Seek Together'가 뜻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2017년 9월 다우케미칼과 듀폰이 합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분사 작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다우듀폰 합병은 다우와 듀폰이 농업, 소재과학 및 특수제품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세 개의 독립적인 상장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즉, 처음부터 분사를 염두에 둔 합병이었습니다. 그 후 18개월 동안 각 기업의 조직 구조를 마무리 짓고, 가치를 펼칠 수 있는 시너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고객과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분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다우는 다우듀폰으로부터의 분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새로운 다우는 이전에 비해 더욱 전문성 있고, 효율적이며, 업계를 선도하는 소재 과학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기존의 포트폴리오, 원가 구조, 마인드 셋에 대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혁신을 이루고, 생산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신중한 투자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에 위치한 다우 본사 전경

#PullingOurWeight 캠페인에 참여한 한국다우케미칼 임직원과 가족들이 수거한 쓰레기의 종류를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하고 있다 ▼



다우는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지속가능경영과 사회공헌 관련 활동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우는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30 여 년간 세 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전략을 발표하며 인류의 안녕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2025 지속가능성 목표'에서 다우는 순환적 경제의 증진, 지속가능한 행성을 위한 안전한 소재, 획기적인 혁신 추구 등 일곱 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다우는 지속가능한 혁신 촉진, 포용적 리더십 배양, 준비된 인력 양성 등 크게 세 가지의 기업시민정신 전략 하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과학 및 이공계 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작년 한해 해안가 및 수로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풀링아워웨이트(#PullingOurWeight)' 캠페인, 저소득층 가정의 집을 수리하는 해비타트 '희망의 집 고치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알리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활동을 교육하는 '반짝반짝 에코스쿨', 중·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교

내 에너지 및 자원절약을 도모하는 '그린 에너지 동아리 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외에도 2014년도부터 한국화학올림피아드를 후원해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대표학생 선발 및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석·박사 과정 재학생 및 박사 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을 개최해 국내 이공계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휴대폰,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부터 안경, 헬멧, 신발 등 일상제품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은 가볍고 견고한 특성 덕분에 우리의 주변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흔히 플라스틱하면 편의성을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례로 식품 패키징의 경우 최신 기술이 적용된 패키징 제품은 식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부패를 방지해 더 오랜 기간 동안 음식을 신선하게 보존해줍니다. 또한 대체재 대비 가벼운 플라스틱 패키징의 특성은 제품 운반 시 총 무게를 감소시켜 운송비용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볍지만 높은 내구성을 지닌 플라스틱을 차체에 적용할 경우 연료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이는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쓰레기의 잘못된 관리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이슈는 열악한 폐기물 관리 인프라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설계,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는 플라스틱의 수명 주기를 적절하게 관리해 폐기물이 자연에 방치되지 않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고, 사용된 플라스틱이 다른 제품으로 재탄

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우는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5 지속가능성 목표'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순환적 경제의 증진'을 우선순위로 두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두고 다우가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플라스틱을 자연환경에서 제거하는 것, 순환적 경제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 파트너십을 통해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비정부기구가 모두 함께 하는 협업이 필요합니다. 다우는 지난 1월 창설된 플라스틱 쓰레기 제거 연합(AEPW, Alliance to End Plastic Waste)의 창설 멤버로, 이 연합에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양한 밸류 체인에 걸쳐 속해있습니다. 약 30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해 이미 1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향후 5년간 15억 달러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연합은 다우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 맞서 싸우기 위해 협업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 중 하나이며, 이 외에도 다우는 서큘레이트 캐피탈 (Circulate Capital), 해양보전센터 (Ocean Conservancy) 등의 비정부 기구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화학제품은 인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명암이 있듯이, 화학제품도 물질의 특성에 따라 잘못 사용 혹은 관리될 경우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정부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는 정부의 법률 강화에 대한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규정 준수를 위해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제도가 한꺼번에 시행되면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추후 과학 기반의 균형잡힌 정책을 세울 때, 설명회를 열어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함께 보장해준다면 안전한 화학물질관리 및 화학산업의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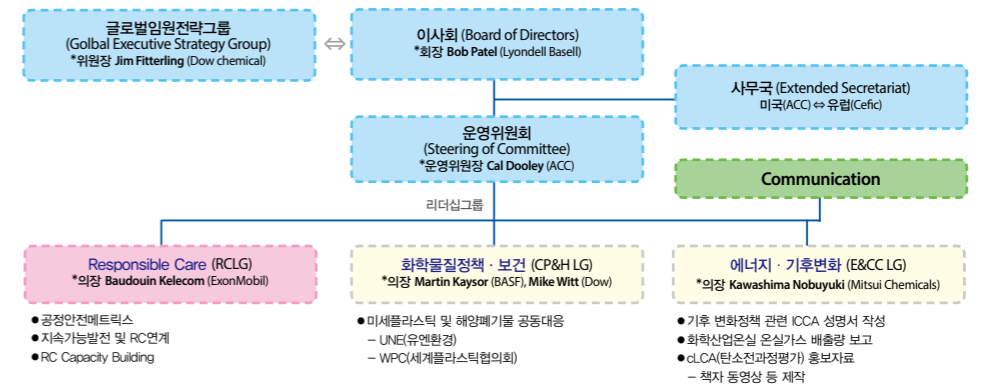
▲ 한국다우케미칼 임직원과 가족들이 인천 용유도 인근 해변에서 #PullingOurWeight 캠페인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ICCA RC 리더십그룹 회의 참가

2019년 상반기 국제화학단체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 이하 'ICCA') Responsible Care(이하, 'RC') 리더십그룹 회의가 아르헨티나석유화학협회(CIQyP) 주최로 지난 5월 7일부터 8일까지 아르헨티나 Melia Buenos Aires 호텔에서 20여개 회원국 담당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ICCA 산하에는 에너지·기후변화, 화학물질·보건정책, Responsible Care 3개 분야에 리더십그룹이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리더십그룹에서는 분야별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연간 2회 회의를 개최 해오고 있다. 전 세계 62개국 협·단체가 RC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가별 RC 프로그램은 개발 단계가 달라 ICCA RC 리더십그룹에 의해 모니터링 된다.

[ICCA조직도 및 주요업무]



금번 회의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로의 RC 이행 확대 계획과 화학 및 가치사슬 산업의 지속가능발전, 각 국별 RC 현황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RC 리더십그룹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안건을 소개 하고, 우리 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주제 ①

● SAICM2020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이하 SAICM)은 화학물질 전생애에 있어서 인간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최소화를 위한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원칙을 말한다. SAICM은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고, 화학물질관리의 자발적 이행을 기본으로 하며 국제질서의 기본 틀로써 작용하였다. 그동안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s Management; ICCM)가 중심이 되어 국가적·지역적 차원으로 SAICM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였으며, 2020년이 도래함에 따라 그 이후 SAICM의 행보에 관하여 논의(SAICM2030)가 진행 중이다.

[SAICM 5대 정책 분야 및 목적]

- ▷ **위해성 저감:** 화학물질 전과정(Life-Cycle)에 있어서 위해성 최소화, 민감·취약 계층의 고려, 위해성 평가·관리, 안전한 대체물질 개발, 유해폐기물 관리 등
- ▷ **지식과 정보교류:** 위해성 정보 생산·제공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전달 강화, GHS이행, 국제적 위해성 정보 조화 및 공유 등
- ▷ **거버넌스 형성:** 화학물질 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와 협력확대, 여성 등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 산업계 참여 및 책임 확대 등
- ▷ **역량형성 및 기술적 협력:** 선진국과 개도국 간 역량 차이 극복, 개도국의 역량형성 지원 및 기술지원·교류 등
- ▷ **국제적 불법 거래 방지:** 유해화학물질의 국제적 불법거래 방지, 국가별 금지물질의 국외 수출 억제 등

개발도상국 화학 산업은 과도기를 겪고 있으며, 화학물질 생산과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관리로 세계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세계화 확대와 화학 산업 공급망이 더욱 복잡해져가는 가운데, 국내·외 상호의존이 강화되어 국제적 차원의 화학물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금번 회의에서는 SAICM 2020년 이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명확한 목표 및 판별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AICM 이행 지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지역별(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SAICM 이행 정도를 검토할 수 있는 대표 협회를 선정하는 의견도 오고 갔다. 또한 국가별 여건과 능력, 우선순위가 고려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개발 지원,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올바른 관리와 향상된 인식 제고, 재정 지원 등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제 ②

● RC 글로벌 현장 개정

RC리더십그룹은 국별 RC 화학단체를 대상으로 'RC 글로벌 현장(RC Global Charter)'을 작성하여, 각 나라별 화학 협·단체장의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RC글로벌 현장은 2006년 처음 발표되었으며,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 작업은 기존 화학기업 CEO 대상 RC글로벌 현장의 내용에 RC 기본 특징(Fundamental Features)을 추가 하여 RC활동 강화를 위한 RC글로벌 현장 이행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RC글로벌 현장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작성된 개정본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RC 글로벌 현장 서명자는 회사, 사람, 기술, 비즈니스에 대해 다음 6가지 핵심 요소를 이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RC 강화에 힘쓸 것을 약속한다.

- 글로벌 RC 이니셔티브를 통해 안전한 화학 물질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사적 리더십 문화
- 환경, 보건 및 안전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와 환경을 보호

* 시설, 공정, 기술의 보안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화학제품 안전 개선 실시

- 유해화학물질 안전 법규 준수와 모범 사례 개발 및 구현에 참여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강화
-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화학제품 사용자와의 협력 및 사업 파트너에 RC활동 홍보
- 이해 관계자 참여, 안전한 운영 및 제품에 대한 우려와 기대, 성과 및 제품 관련 공개적 의사소통
- 성과 개선, 경제적 기회 확대,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기타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 가능성에 기여



본 글로벌 현장은 2019년도 상반기 ICCA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19.4월, 캐나다)에서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최종본은 2019년도 하반기 RC 리더십 회의('19.11월, 한국)에 공유될 예정이다.

주제 ③

● Cefic Rejuvenation(회춘, 원기회복) 프로젝트 및 RC성숙도 모델

유럽화학산업연합회(Cefic)는 유럽 화학업체가 성과 기반의 RC 관리 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화학 산업 이미지 제고와 신뢰회복 기여를 위해 Rejuvenation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 프로젝트는 RC를 국제표준과 지속가능성 원칙에 연계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방식의 도구 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RC이행 및 성숙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8가지 핵심 가치는 통합(Unify), 조화(Harmonize), 간소화(Simplify), 강화(Strengthen), 내재화(Engrain), 권한부여(Empower), 공유(Share), 개선(Improve)이다. 모든 화학 업체를 대상으로 사용자 친화적이며, 지역 수요에 기반을 두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체평가 툴 및 RC 관리 체계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RC 자체평가 툴은 100여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 내 52개 기업에 테스트해 본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기업은 자체평가 툴 질문에 단순히 양자택일 답변을 함으로써, 회사가 얼마나 SDGs에 기여하는 지를 점수와 그래프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RC 자체평가 툴은 마이너한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완성본은 각 국 RC협의회에 공유될 예정이다.

주제 ④

●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 활동

2016년 ICCA 이사회는 각 리더십 그룹의 회원으로 구성된 '역량구축 TF팀(Capacity Building Task Force)'을 결성함으로써, 각 국 협·단체에 RC, 규제협력,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ICCA는 유엔 환경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우선순위 국가로 규정돼 있는 중국, 인도, 아프리카에 대한 추가 지원도 목표로 삼고 있다.

RC 주요 역량구축 활동

- (아프리카) ICCA T/F는 RC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기 위해 케냐제조업협회(KAM)와 지속적인 사업 추진 중
 - RC뉴질랜드는 KAM과 케냐화학협회에 UN화학물질 분류·표시 기준 채택 권장과 화학물질 운송개선에 기초한 RC 행사 개최 제안
 - * ICCA 역량구축 자금은 나이지리아, 가나, 모잠비크, 아이보리해안국, 탄자니아, 잠비아, 보츠와나, 나미비아 등 RC 채택에 관심을 표명한 아프리카 국가의 RC 추진을 위해 사용
 - 케냐화학협회는 RC 리더십그룹에서 읍저버 자격 신청 예정
- (중국) 치명적인 사고가 연속되어 중국 산업은 커다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 정부는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 중국석유화학공업연합회(CPCIF)는 ICCA RC 리더십그룹 직원 파견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으며, 특히 자체 평가 및 3차 검증에 추가로 기술지원 요청
 - CPCIF는 ICCA와 소통을 강화하고 RC이행에 있어서 장애물을 제거 추진

- (인도) 중소기업 대상 RC확대, RC 안내 지침 및 코드 업데이트를 위한 워크숍 개최, 보안코드 이행 및 훈련 진행
 - 인도화학산업협회(ICC)는 타 국가 화학규제에 대한 정부 공무원 교육을 위해 고위급 포럼 지원 모색

ICCA 운영위원회는 기금을 통한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 지원(강연, 양질의 자료 등) 향상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인력풀 구성은 RC 리더십 그룹이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ICCA가 어떻게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을 지, ICCA의 최종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 구축 함양은 무엇인지는 추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ICCA는 ①개발도상국에서 화학물질 관리 및 RC구현을 위한 지원, ②화학 규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간 구축 능력, ③UNEA-4 와 같은 특정 문제에 대한 지지를 하기 위한 각 정부 및 협회 활동 지원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주제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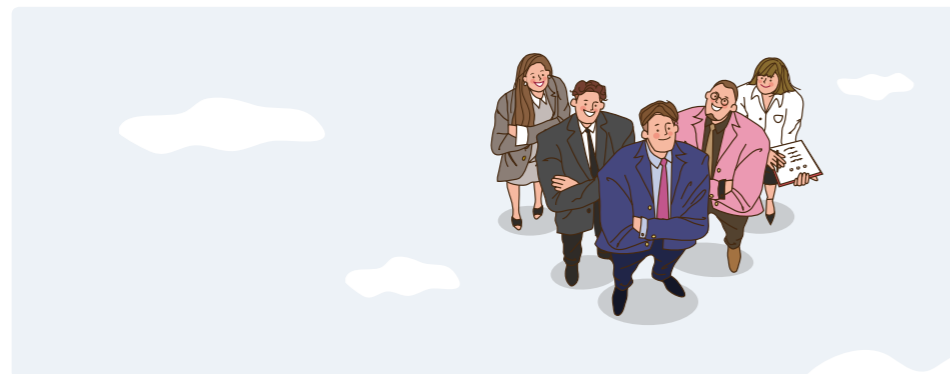
● 한국RC협의회 국제 행사 개최

마지막으로 한국RC협의회에서는 RC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APRCC2019(Asia Pacific Responsible Care Conference) 행사 개최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 하였다. 발표 주요 내용으로는 APRCC2019 개최 배경, 일정 및 장소, 프로그램 등 행사 개요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RC회원단체를 대상으로 동 회의 참가 요청을 하였다.

APRCC는 아태지역에서 RC활동 증진 및 우수 이행사례 공유를 통한 화학 산업 개선 등 장기적 공동 발전 추구를 위해 1995년(홍콩)부터 매 격년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였다. 올 해에는 한국의 RC 추진 2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며, 14개 RC회원국 담당자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 RC리더십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국제 행사 개최를 통한 위상 강화와 아태지역 RC활동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 이행사례 공유를 통해 화학 산업 이 미지 개선 등 장기적 공동발전을 기대해 본다.



APRCC 행사 개요

- ✓ 행사명 : APRCC(Asia-Pacific Responsible Care Conference) 2019
- ✓ 일 자 : 2019. 11. 7(목) ~ 8(금)
- ✓ 장 소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1F)
- ✓ 행사테마 : The Next Challenges for Responsible Care
 - 주제 ① RC의 현재와 미래(회원국별 RC 추진 현황 및 과제)
 - 주제 ② RC와 지속가능발전(Sustainability)
 - 주제 ③ 회원국별 플라스틱 대응 현황 및 향후 과제
 - 주제 ④ 공정안전 우수사례
 - 주제 ⑤ 지역사회와 커뮤니케이션
- * 각 주제별 3-4명의 주제 발표 및 패널 토의로 진행
- ✓ 참가대상 : 아태지역 14개 RC 회원국 담당자 약 300여명 (한영 동시통역 제공)
- ✓ 공식홈페이지 : <http://www.aprcc2019.com/>



‘누구도 소외 안 되게’ 기업 역할의 버전업

유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배우는 기업 전략

“그 어느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지 않겠다. (Leave no one behind, we don't leave our men or women in uniform behind)” 5년 동안 아프간 반군 탈레반의 포로였던 보우 버그달(Bowe Bergdahl) 병장을 구하려고 탈레반 포로와 그를 교환하기로 승인한 2014년의 어느 날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한 말이다. ‘네모 레지테오(Nemo Resideo)’라는 라틴어 문구에서 유래한 ‘Leave no one behind’란 말은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용어다. 그런데 이 문구가 2015년 유엔에 다시 등장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세상을 만들자!’ 바로 2015년 9월25일, 193개 유엔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한 역사적인 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슬로건으로 말이다. 전쟁과 마찬가지로 전 지구적으로 대응해야 할 도전 과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한 슬로건은 없을 것이다. SDGs가 채택된 지 4년째가 되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빠른 속도로 이 새로운 인류 공동의 패러다임을 자사의 비즈니스 전략에 결합하고 있다. 단순히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기업은 왜 SDGs를 새로운 비즈니스 목표로 삼아야 할까? SDGs가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일깨워줌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유엔글로벌콤팩트가 기업의 SDGs 이행 가이드로 제공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콤팩스(SDGs Compass)에 따르면 SDGs에 헌신하는 기업은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에 관해 혁신적인 해법을 모색하면서 미래의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요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하면서 강력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도브, 바셀린, 립톤 등의 브랜드로 유명한 글로벌 소비재 기업 유니레버가 2010년부터 실천하고 있는 ‘유니레버 지속가능한 삶 계획(Unilever Sustainable Living Plan, USLP)’이 대표적인 모범 사례다. USLP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개별 부서 차원이 아닌 기업 전체 차원에서 추진해 지속가능성을 사업 목표와 전략에 통합한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서 유니레버의 명성을 높인 일등 공신이기도 하다. 지속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비용 절감, 리스크 감소에 기여한다는 전제하에 세워진 USLP는 ‘건강 및 복지 향상’ ‘환경 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 감소’ ‘생활 수준 향상’을 3대 목표(goals)로 삼고 있다. 그 아래로 ‘건강과 위생 증진’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 감소’ ‘물 소비 절감’ 같은 9개의 중점 과제(pillars)가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그림 1)

[그림 1] USLP의 3대 목표와 9대 중점 과제



유니레버가 USLP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는 무수히 많다. 한 예로 2017년 유니레버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자사의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100% 재활용 및 비료화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네덜란드에서는 한 스타트업과 협력해 페트(PET)를 분자 단위로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해 올해 상용화를 목표로

로 하고 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현재 재활용이 불가능한 유색 PET 및 이물질이 묻은 PET를 재활용 가능한 깨끗한 플라스틱으로 바꿀 수 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에서 폴리에틸렌을 추출해 새로운 비닐봉지를 제작하는 고품질 폴리머 생산 기술을 시범 적용 중이다. 유니레버는 기술적 혁신에 그치지 않고 신기술을 사용해 재활용 순환 고리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신 기술을 외부에도 공개해 보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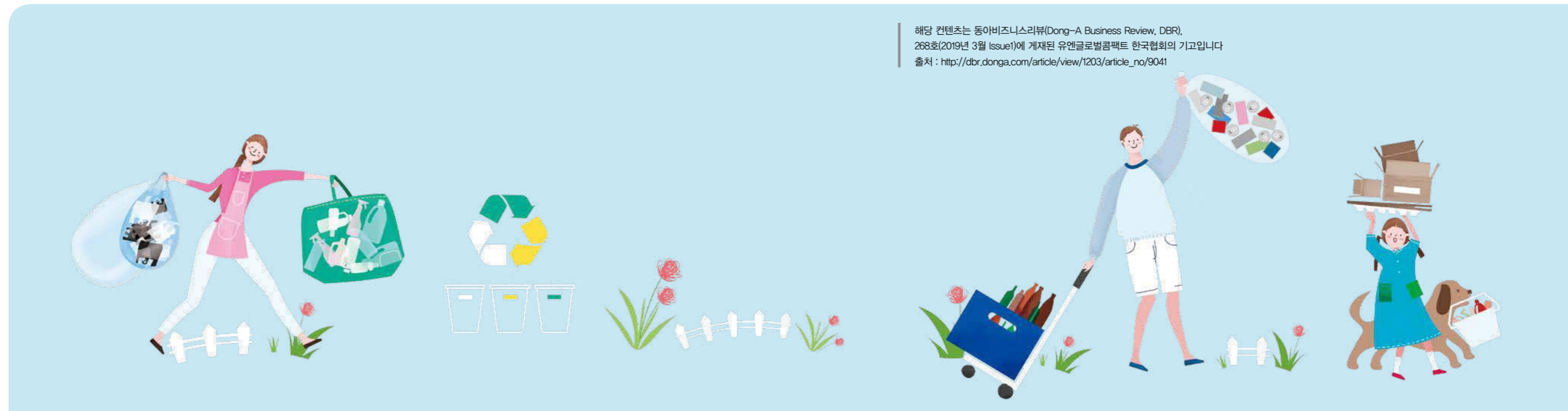
[그림2]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 부의장 자격으로 2018년 한국을 방문한 유니레버의 폴 폴먼 회장



유니레버는 팜유 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팜유는 경작지 대비 수확량이 우수한 비식량작물에서 추출되는 식물성 기름이지만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고질적인 환경 문제와 인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 최대의 팜유 소비 기업인 유니레버는 자사 제품에 사용된 팜유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됐음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자 '지속가능한 조달'이라는 세부 타깃 목표 아래 자사의 팜유 공급망 투명성(traceability)을 강화하고 협력사들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니레버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인증 기준인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 창립 멤버이자 인증기업이기도 하다. 2016년 지속가능한 팜유 조달 정책을 제정해 자사 팜유 생산 및 유통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성 원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2018년에는 직간접적으로 유니레버에 팜유를 공급하는 공급자와 팜유 제조 공장의 명단을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18년에는 유니레버의 확장 공급망에 속한 1600개의 팜유 생산 공장과 유니레버가 사용하는 팜유의 88%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2019년에는 100% 투명성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자소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는 1999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해 2000년 7월 발족한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다.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글로벌 경영 관행으로 정착시키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유엔 어젠다의 이행을 장려해 기업과 시장의 사회적 합리성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07년 9월 설립된 네트워크로 한국 회원사의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행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해당 콘텐츠는 동아비즈니스리뷰(Dong-A Business Review, DBR), 268호(2019년 3월 Issue1)에 게재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기고입니다
출처 : http://dbr.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9041

ICCA는 Responsible Care 활동을 통해 17개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더욱 빠르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1. 빈곤의 종식 약 7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건강, 교육, 물 공급 및 위생과 같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얻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CCA는 빈곤 종식 및 유해 물질 노출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p>
	<p>2. 굶주림 없는 세상 전 세계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은 약 8억 명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의 역량으로 ICCA는 굶주림을 종결하고, 식품 안전 및 영양 상태를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p>3. 건강과 웰빙 지속가능한 개발 및 번영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추구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ICCA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더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화학 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p>
	<p>4. 질적인 교육 교육은 다른 여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질적인 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불공정을 감소시키며,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p>
	<p>5. 성평등 성평등은 기본적인 인권일 뿐 아니라, 평화롭고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입니다. ICCA는 성평등을 달성하고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p>6. 깨끗한 물과 위생 약 24억 명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ICCA는 사람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 받고, 위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p>
	<p>7. 깨끗한 에너지 화석 연료의 연소는 많은 양의 온실 가스를 생성하며, 이로 인해 기후 변화 및 웰빙과 환경에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ICCA는 합리적인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p>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적 성장 2016년에서 2030년까지 증가하는 생산가능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4억 7천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ICCA는 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p>

	<p>9. 산업, 혁신 및 사회기반시설 경제 성장, 사회적 발전 및 기후 행동은, 인프라 투자,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 및 기술적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ICCA는 견고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용적/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추진하며,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p>
	<p>10. 불평등 완화 불평등은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방해하고, 빈곤 감소를 저해하며, 사람들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감소시킵니다. ICCA는 전 세계의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기회, 서비스 및 더 나은 삶의 가능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p>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오늘날 인류의 절반 이상인 35억 명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CCA는 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이 높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p>
	<p>12.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은 자원과 에너지 효율, 그리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며, 사람들이 기본적인 서비스, 일자리 및 삶의 질 향상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ICCA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p>13. 기후 변화 대응 기후 변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초래되며, 삶의 방식과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구축하려면 우리는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ICCA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p>
	<p>14. 해양 생태계 해양 쓰레기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해양 생태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의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중대한 환경 및 경제 문제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ICCA는 대양, 바다 및 해양 자원의 보호, 회복, 그리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p>
	<p>15. 육지 생태계 숲은 지구 면적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서부터 물과 음식에 이르기까지, 숲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ICCA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숲을 관리하고, 사막화를 방지하며, 토지 황폐화를 저지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p>
	<p>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UN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달성하려면,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가 필요합니다. ICCA는 질적인 교육, 의료 서비스, 공정한 경제 정책 및 포괄적 환경 보호를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모두를 포용하는 공공 제도를 지원합니다.</p>
	<p>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정부, 시민 사회, 과학계, 학계 및 민간 부문의 대표자들은 반드시 긴밀히 협력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와 미래 기술, 재정 및 역량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파트너십에 참여해야 합니다.</p>

* 자료제공 : 국제화학단체협의회(ICCA)

Members Focus



SK 머티리얼즈 | SK머티리얼즈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추진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전문기업 SK머티리얼즈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에 나선다. SK머티리얼즈에 따르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머티리얼즈는 SK그룹 내에서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실트론에 이어 네 번째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한다. SK머티리얼즈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5월 3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인프라 설치,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무 도입 등 성공적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편, SK머티리얼즈는 한국RC협회의 '2019년 제1회 이사회 및 제20기 정기총회(2.14)'에서 신규 회원사로 가입이 승인되었다. 앞으로 RC 이행을 통한 세계적인 수준의 SHE 문화 및 성과 달성을 기대해 본다.

금호석유화학 | 금호석유화학

문동준 사장·김선규 부사장 선임

금호석유화학그룹(회장 박찬구)은 4월 8일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에 문동준 전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이사를, 관리본부장(부사장)에 김선규 전 포스코대우 부사장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문동준 선임 대표이사는 1954년생으로, 휘문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금호석유화학에 입사해 회장 부속실·기획·해외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 2002년부터는 금호미쓰이화학에서, 2010년부터는 금호피앤비화학에서 임원으로 근무했으며, 2012년 금호피앤비화학의 대표이사를 맡아 올해 3월까지 재직했다. 문 사장은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직을 겸임 중이다.

김선규 선임 관리본부장은 1957년생으로, 대전고등학교와 서강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대우에 입사해 원유·석유·화학제품 부문을 담당해왔다.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포스코대우(현 포스코인터내셔널) 물자화학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김선규 부사장 내정은 지난 금호피앤비화학 신우성 선임 대표이사 사장에 이은 금호석유화학그룹 두 번째 외부인사 영입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이번 사장단 인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혁신과 내실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을 맞이하게 됐다"며 "새로운 체제 하에서 주력 제품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며 올해 실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환경 악화 'R&D'로 돌파

금호석유화학그룹이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연구 혁신을 통해 올해 의미 있는 성장을 달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선도적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고성능 제품들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기술 지원 부서의 협업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견고히 하고 부문별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주력 부문의 궁극적인 재도약을 이끈다는 일념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주력 부문인 고품 합성고무제품의 고부가가치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동차 타이어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금호석유화학의 대표 제품인 BR(부타디엔고무)의 경우 올해 리튬 촉매를 사용한 LiBR 소재에 타이어용으로 연비특성을 20~40% 개선시키는 기술을 적용한 F-LiBR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F-LiBR은 기존 BR의 연비 특성을 강화하면서 낮은 발열 특성으로 타이어 파열에 대한 저항이 우수하다. 중량이 큰 트럭·버스 타이어용 합성고무(TBR)로의 활용에서도 개선된 연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 제품에 대해 올해 말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김포학단지로의 연구소 이전을 연내 마무리하고 고부가가치 에폭시를 비롯한 복합수지 연구를 본격화한다. 이전이 완료되면 금호피앤비화학은 수도권 거점을 보유하게 돼 기존 여수 사업장과 연구를 비롯해 생산·영업·물류 등 부문 간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유화주식회사 | 대한유화

'430억 친환경 설비' 들이는 대한유화

대한유화가 온산공장에 430억원을 들여 환경개선을 위한 신규 설비를 도입한다. 사용 가능한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시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 불꽃과 소음에 좀 더 안정적인 설비로 바꾸는 공사다. 대한유화는 4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30일간 온산공장을 대상으로 대정비(T/A)를 실시하였다. 긴급상황 등 공장 재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그라운드 플레어 스택(가스를 태워 독성을 없애 대기 중에 내보내는 장치)과 슈퍼 스팀 보일러 등 약 430억원의 신규 설비를 도입하는 최종 마무리 공사가 포함돼 있다. 대한유화는 4,950억원을 투자해 2017년 6월 에틸렌 생산량을 연간 47만 톤에서 80만 톤으로 늘리는 나프타분해시설(NCC) 증설 공사를 했다. 대한유화는 기존 플레어 스택 대신 좀 더 안정적인 그라운드 플레어 스택과 슈퍼 스팀 보일러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한유화 측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번 대정비를 마치고, 향후에는 안전한 공장 운영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ANXESS | 랑세스코리아

강차(強車)용 듀레탄 퍼포먼스 신소재 출시

독일계 특수화학기업 랑세스(LANXESS)는 자동차 경량화 구조 및 엔지니어링 부품, 전기차 배터리 모듈 구조물 등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강화 폴리아미드 6 기반 듀레탄 퍼포먼스(Durethan Performance) 신소재를 선보인다고 5월 13일 밝혔다. 듀레탄 퍼포먼스 신소재는 50~60% 유리섬유로 보강된 고강성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반복하중에 대한 내피로 내구특성이 우수하다. 전기차 배터리 모듈 구조물, 엔진오일 팬, 오일 필터 모듈 및 엔드캡, 엔진 및 새시 마운트, 댐퍼 피스톤, 시트 쉘 등 진동에 장시간 노출되는 부품에 적용할 수 있다. 기어 휠(gear wheel)처럼 높은 동적 응력을 받는 부품에도 적합하다. 폴리아미드 6 기반의 듀레탄 BKV50PH2.0과 듀레탄 BKV60PH2.0EF은 폴리아미드 66 소재와 동등한 수준의 뛰어난 기계적 물성을 제공한다. 추가로 유리섬유를 보강할 필요가 없어 밀도 증가, 적용 제품의 중량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다. 한상훈 랑세스코리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부 이사는 “새로운 듀레탄 퍼포먼스 제품군은 가벼운 무게에 우수한 내피로 특성과 고유동 특성을 갖추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겸비했다”며 “자동차, 전장부품, 항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폴리아미드66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OTTE CHEMICAL | 롯데케미칼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 “2030년 매출 50조·세계7위 화학사 목표”

롯데케미칼이 2030년 매출 50조원으로 세계 7위 규모의 글로벌 화학사로의 도약을 천명했다. 롯데케미칼과 현대오일뱅크의 협력을 비롯해 롯데그룹 화학BU는 2022년까지 국내에 약 3조7000억원의 투자를 단행하고 3만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화학관련 스타트업 기업 투자 등 다양한 국내 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내수활성화 진작을 도모한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5월 24일 현대오일뱅크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HPC 투자합작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 롯데케미칼과 현대오일뱅크의 합작사인 현대케미칼을 통해 HPC(정유 부산물 기반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 진행을 결정한 바 있다. HPC 공장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내 20만평 용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공장 건설에 약 2조7000억원의 투자비가 투입된다. 건설기간 인력 포함 약 2만6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전망된다. 체결식에서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는 “롯데케미칼은 HPC 공장의 건설과 더불어 울산과 여수공장의 생산설비도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료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와 더불어 국내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 2030년 매출 50조원의 세계 7위 규모의 글로벌 화학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美 세일혁명 중심에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완공

롯데케미칼이 미국의 최대 정유공업지대에 한국 기업 최초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롯데케미칼은 5월 9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서 롯데케미칼 에탄분해시설(ECC), 에틸렌글리콜(EG) 공장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14년 2월 ECC 합작사업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6년 6월 기공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약 3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축구

장 152개 크기(약 102만㎡)의 대규모 콤플렉스를 한국 화학기업 최초로 미국 현지에 건설했다. 롯데케미칼은 미국 신규 ECC 공장에서 연간 100만 톤의 에틸렌을, EG 공장에서는 연간 70만 톤의 EG를 생산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이번 미국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을 통해 기존 원료인 납사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가스원료 사용 비중을 높여 유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와 안정적인 원가 경쟁력을 구축하게 됐다”며, “원료, 생산기지, 판매 지역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도 더욱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공장 준공으로 롯데케미칼의 글로벌 에틸렌 생산규모는 약 450만 톤이 돼 국내 1위, 세계 7위권의 생산규모를 갖추게 됐다”며,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에 위치한 글로벌 생산기지를 통해 세계적인 화학회사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C | SKC

친환경 페트병 포장재, 미국서 우수성 인정

SKC의 에코라벨을 적용한 첫 제품이 미국 플라스틱재활용업체협회(APR)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SKC는 APR이 지난 3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2019 APR 회원 총회'에서 SKC 에코라벨을 포장재로 사용한 글로벌 생활용품 제조사 콜게이트-팜올리브의 주방세제 제품에 'APR 쇼케이스 어워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APR은 탁월한 재활용성과 포장재 성능을 동시에 보인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SKC의 에코라벨은 SKC의 미국 법인 SKC잉크(inc.)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재활용 가능 PET병 포장재'다. 그동안 '라벨은 떼어내 버려야 한다'는 발상을 뒤집은 제품으로 PET병과 같은 소재라 재활용 공정 세척수에 씻기는 잉크를 사용하면 PET병과 함께 재활용할 수 있다. SKC 에코라벨을 사용하면 폐기물이 없어 환경오염 문제가 없고 재활용 PET량이 늘어나 친환경적이다. 기존 설비를 바꿀 필요가 없어 추가비용도 들지 않는다. SKC 에코라벨은 지난 2016년 7월 탁월한 재활용성을 인정받아 APR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았다. SKC잉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SKC 에코라벨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럽 유리피언 PET병 플랫폼(EPBP)의 인증을 받고 시장에 진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SKC잉크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음료수·생활용품 회사에서는 페트병은 물론 패키징까지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글로벌 고객사에 SKC 에코라벨의 재활용성, 혁신성을 알리고 현재 도입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고객사에도 최적의 기술 지원을 통해 빠른 제품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AXALTA | 엑셀타 코팅 시스템즈 코리아

인하공전과 우수 인력 양성 산학협력협약 체결...교보재 기증도

엑셀타 코팅 시스템즈 코리아는 지난 5월 13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인하공업전문대학과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 코팅 분야에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MOU다. 앞으로 양 기관은 ▲산학협력 현장실습, 견학 및 취·창업 지원 ▲교육 과정 및 교재의 공동 개발 협력 ▲기타 협력 사업 추진 및 교류 등 학생들의 자동차 코팅 기술 향상을 도모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엑셀타 코팅 시스템즈 코리아는 이날 인하공업전문대

학 자동차학과 재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엑셀타 코팅 시스템즈의 프리미엄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인 스피스헥커 퍼마하이드 하이텍 수용성 페인트 및 교반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한편 엑셀타는 세계적인 코팅 업체로 고객에게 혁신적이고 화려하면서도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인하공업전문대학은 국내 우수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과 공동 교과과정 개발 등을 중심으로 산업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 중이다.

LG화학 | LG화학

고부가 제품·기술로 중국 시장 공략 '가속도'

LG화학이 차별화된 고부가 제품과 기술을 통해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LG화학은 5월 21~24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러스 2019'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차이나플러스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 박람회로, 총 40개국에서 4000여 글로벌 기업이 참석한다. LG화학은 358㎡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스마트 라이브 솔루션'을 테마로 석유화학 제품, 배터리, 탄소나노튜브(CNT) 등을 전시한다. 특히 LG화학은 이번 전시회에서 실질적인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한다. 각 전시 존(Zone)별로 고객의 이해를 돕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배치했다. 부스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로 상세한 제품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원활한 고객 안내 및 상담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고객 미팅 라운지를 대폭 확대했다.

LG화학은 플라스틱 소재의 정확한 색 구현을 강조한 컬러칩 구조물을 부스 한가운데 전시하고, 화면을 통해 고객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색상을 소재에 정확하게 구현하는 컬러 디자인 공장도 소개한다. 부스 우측에는 자동차부품 소재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자동차 목업(Mock Up)을 전시하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자동차 부품 소재를 상시 소개한다.

'미래 과학인재 육성' 화학놀이터 진행

LG화학은 5월 16일 여의도 본사 인근 도림초등학교 4~5학년 학생 160명을 초청해 '재미있는 화학놀이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미있는 화학놀이터는 LG화학과 기아대척이 주최하는 체험형 사회공헌활동으로, 교과과정과 연계된 화학실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2015년부터 5년째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총 4,400여명의 초등학교생이 참가했다. 올해는 LG화학 전국 사업장 인근 7개 초등학교에서 총 1,2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LG화학은 이날 총 4개의 체험관으로 화학놀이터를 구성하고 UN이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한 다양한 과학실험과 인성 함양 교육을 진행했다. 박준성 LG화학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향후에도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화학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해 방학 기간 동안 60여명의 대학생 교육 멘토단이 아동센터를 찾아가 교육 키트 활동 및 선행학습 멘토링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화학놀이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ISU 이수화학 | 이수화학

주력 제품 IPA 기반 수익 개선 박차

이수화학이 정밀화학제품을 주력 사업으로 내세워 수익성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수화학은 자체 개발 정밀화학제품인 IPA(Isopropyl Alcohol · 아이소프로필 알코올)가 지난해 4분기 판매 호조세를 나타냈으며 지난해 누적 매출액은 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4월 8일 밝혔다. 이수화학은 과거 2006년 기존의 프로필렌 공법과 달리 아세톤을 원료로 하는 IPA 생산공법의 독자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국내에서 IPA 생산기업은 이수화학을 포함해 총 두 곳이다. IPA는 공업용 도료 및 시약 원료, 전자재료 세정용제 인쇄잉크 등의 용제로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 시장 수요는 연간 약 250만 톤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PA 수익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수화학은 이를 기존 TDM과 더불어 주력 캐시카우 아이템으로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수화학 관계자는 "프로필렌 가격은 오르고 있어 아세톤 기반의 IPA 제품이 더 경쟁력 있고 호조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이수화학은 IPA 유럽 판매를 위해 필수 과정인 EU REACH 인증까지 마무리해 글로벌 판매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케미칼 | 한화케미칼

닝보 공장 안전관리 비결 궁금해요

저장성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산하기관 인사들은 한화케미칼의 안전관리 비결을 배우기 위해 닝보공장 폴리염화비닐(PVC) 공장을 지난 4월 12일에 방문하였다. 이들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자동밸브와 경보 설비 등이 설치된 폐수 분리 시설을 비롯해 폐수의 절반가량을 재활용하는 폐수 재활용 시스템 등을 둘러봤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대처가 가능한 한화케미칼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닝보 공장 방문은 최근 중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학 사고와 관련이 깊다. 지난 3월에는 장쑤성의 농약 제조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산둥 지역에서는 보온재료 공장의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해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4월 8일에는 신장 지역에서 보일러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국 내부에서는 화학공장의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쑤성 측은 화학 공정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로 현재 4,500여개인 지역 내 화학 공장을 내년에는 2,000개로 줄일 예정이며 2022년에는 1,000 이하의 화학 공장만 운영을 허가해 줄 예정이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중국 당국 고위관계자의 이번 닝보 공장 방문은 절강성 산하 각 기관장들에게 안전관리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각종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향후에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RC Activity NEWS

ISSUE NO. 42



● 2019년 제1회 이사회 및 제20기 정기총회 개최

한국RC협의회는 2019년 2월 14일(목)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채종경 회장을 포함한 회원사 임직원 및 RC코디네이터, 화학업계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 1회 이사회 및 제 20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①2018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②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및 ③신규회원 가입 승인의 건(SK머티리얼즈), ④임원 개선의 건 등 4개 안건을 사무국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

● 2019년 제1차 및 2차 운영위원회(서면) 개최

한국RC협의회는 RC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2019년 제1차 및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SK머티리얼즈 신규가입, '2019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개최 및 예산(안) 보고, RC 뉴스레터 발간 체계 변경 계획, APRCC2019 개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였고, 사무국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 2019년 제1차 실행위원회 개최

한국RC협의회는 2019년 3월 27일(수)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회의실에서 박인 실행위원장(LG화학 상무)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3년부터 제작한 RC 6개 코드(공정안전, 근로자의 안전보건, 환경보호, 운송안전, 지역사회 인식과 비상대응, 제품 책임주의) 체크리스트의 작성 현황 및 시범 적용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RC체크리스트 평가들은 지난 '18년에 완성하여 책자 배포 및 RC 홈페이지 게재를 완료 하였으며, 회원사에 시범적용 후 실행위원회 개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사업장 적용을 통한 체크리스트 개선과 보완 및 체크리스트 내 참고사항 등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 2019년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주관교사단체 회의 개최

한국RC협의회는 2019년 2월 26일(화) 서울역 티원에서 이훈신 운영위원장(한국다우케미칼 이사)과 3개 지역(서산, 여수, 울산) 주관교사단체 선생님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주관교사단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2018년 행사 결과 및 2019년도 행사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9년 행사 주제를 '깨끗한 환경, 화학산업의 약속!'으로 결정하고, 각 지역별로 이와 관련된 소주제를 선정하여 실험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 RC체크리스트 시범 사업 실시

한국RC협의회는 2019년 4월 25일(목) 2018년 개발 완료된 RC체크리스트의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사업장 시범적용을 추진하였다. 시범 사업 대상 사업장은 2018년 10월 LG화학 자회사로 편입된 우지막코리아로 선정하였으며, 문동국 우지막코리아 대표, 김명기 LG화학 책임, RC 사무국 등 총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의 안전보건코드'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장 진단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자율 개선방안을 조언하였으며, RC체크리스트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선 사항 적용 및 추가 시범사업 실행으로 추후 RC체크리스트를 점검 및 보완할 예정이다.



● 2019년 제2회 이사회(운동모임) 개최

한국RC협의회는 2019년 6월 1일(토) 파인크리크CC에서 이사회 임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RC협회 20주년 기념행사 논의를 위해 2019년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한국RC협의회가 올해 11월에 개최하는 APRCC2019 국제행사 안내 및 후원 현황을 공유하였다.



APRCC2019 후원현황

플래티넘. 금호석유화학, 동서석유화학, 롯데케미칼, SK종합화학, LG화학, 한화케미칼, 한화토탈, KOCIC, KPFA

골드. 여천NCC, 동우화인켐, 코베스트로코리아, 대한유화, 듀폰코리아

실버. 롯데엠시스, 롯데정밀화학, SK머티리얼즈, SKC, LG MMA, OCI, 코오롱인더스트리

RC Activity

NEWS

ISSUE NO. 42



● 2019 상반기 ICCA RC 리더십그룹 회의 참가

2019년 상반기 RC 리더십그룹 회의는 5월 7(화)~8(수) 양일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 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Baudouin Kelecom RCLG 의장을 비롯하여 전세계 RC 회원국 26명이 참석하여 RC 현안 공유 및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RC와 지속가능발전(Sustainability)의 관계 및 전략, 유럽화학산업연합회의 Rejuvenation 프로젝트 및 RC자체평가들 소개, 2019년 역량구축 지원 결과 및 예산 집행 계획, UN 환경과의 협력 현황, RC 글로벌 현장 개점 경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올해 11월에 '2019년 하반기 RC 리더십그룹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한국RC협의회는 추진사항 및 협의사항을 검토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RC협의회는 연말에 개최되는 APRCC2019 행사 안내 및 발표자 추천을 건의하였다.



● 화학산업 협력사 안전관리 세미나

한국RC협의회는 2019년 6월 12일(수) 여수 엠블호텔에서 회원사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협력사 안전관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듀폰 안전컨설팅 사업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회원사 안전 담당 임원(공장장, 생산 및 환경안전 임원)을 대상으로 '협력사 안전은 왜 중요한가?', '효과적인 협력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6단계 및 안전관리의 핵심요소'에 대해 강연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협력사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및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법, 듀폰의 안전문화(FELT 리더십 등)에 대해 알 수 있고, 참가자 간 경험과 정보 공유를 통해 안전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국RC협의회는 국내 화학산업의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선진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임원대상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2019년 하반기 한국 RC협의회 주요행사 안내

■ 2019 제2차 실행위원회 개최

일시(안) : 2019년 7월 9일(화) 16:00
장소(안) : 협회 회의실
내용(안) : RCLG 참가결과 및 체크리스트
시범적용 결과 공유 등

■ 화학산업 지속가능발전포럼 개최

일시 : 2019년 9월 26일(목) 10: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2019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개최

2019년 8월 31일(토) 서산 서령고등학교
2019년 9월 21일(토) 여수 석유화학교등학교
2019년 9월 28일(토) 울산 신천초등학교

■ RC 20주년 기념 행사

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18:00~20:00
장소 :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

■ 2019 RCLG(Responsible Care Leadership Group) Meeting

일시 : 2019년 11월 5일(화) ~ 6일(수)
장소 : 웨스틴조선호텔

■ 2019 APRCC(Asia-Pacific RC Conference) 개최

일시 : 2019년 11월 7일(목) ~ 8일(금)
장소 :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Members

일 반 회 원

- (주)공리양행
- 금호석유화학(주)
- 금호피앤비화학(주)
- 대림산업(주)
- 대성산업가스(주)
- 대한유화(주)
- 동서석유화학(주)
- 동우화인켐(주)
- 듀폰코리아(주)
- 랑세스코리아(유)
- 롯데비피화학(주)
- 롯데엠시(주)
- 롯데정밀화학(주)
- 롯데첨단소재(주)
- 롯데케미칼(주)
- 머크 주식회사
- 삼남석유화학(주)
- (주)아케마
- 애경유화(주)
- (주)에보닉코리아
- (주)SH에너지화학
- SK머티리얼즈(주)
- SKC(주)

- SK종합화학(주)
- 에어리퀴드코리아(주)
- 엑솔타코팅시스템즈코리아(유)
- LG MMA(주)
- (주)LG화학
- 여천NCC(주)
- OCI(주)
- 용산화학(주)
- 이수화학(주)
- 이스트만화이버코리아(주)
- 인피니움코리아
- GS칼텍스(주)
- (주)카프로
- KPX케미칼(주)
- 코베스트로코리아(주)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태광산업(주)
- 폴리미래(주)
- 한국다우케미칼(주)
- 한국다우코닝(주)
- 한국바스프(주)

- 한국알콜산업(주)
- 한국ASK케미칼(주)
-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주)
- 한국트린지오(유)
- (주)한수
- (주)한주
- 한화케미칼(주)
- 한화토탈(주)
- 효성화학(주)

준 회 원

- 대한석유협회
- 수도권공정안전협의회
- 한국비료공업협회
- 한국석유화학협회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한국클로르알카리공업협회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APRCC 2019' 개최 안내

우리 한국RC협의회에서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RC 활성화 및 국·내외 위상제고를 위해 'Asia Pacific Responsible Care Conference 2019' 국제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행 사 명 : APRCC 2019
(Asia-Pacific Responsible Care Conference)
일시/장소 : 2019. 11. 7(목)~8(금),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1F)
행사주제 : The next challenges for Responsible Care
참가대상 : 아태지역 14개 RC 회원국 담당자 약 300여명
(한영 동시통역 제공)
참 가 비 : 400,000원/인 (금 사십만원)
홈페이지 : www.aprcc2019.com

* 행사장 내 한정된 좌석으로 참가신청은 선착순 마감 될 예정이며, 회원사는 사무국으로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